

	군무원 국어 기출	문정호 교수
	2022. 7. 16. 일반군무원 9급	

1. 다음 중 띄어쓰기가 가장 옳은 것은?
- ① 지난 달에 나는 딸도 만날겸 여행도 할겸 미국에 다녀왔어.
  - ② 이 회사의 경비병들은 물 샐 틈없이 경비를 선다.
  - ③ 저 사과들 중에서 좀더 큰것을 주세요.
  - ④ 그 사람은 감사하기는 커녕 적게 주었다고 원망만 하더라.

1. [정답] ③ [난이도 中 어문규정 띄어쓰기]  
 [풀이] ‘복수(複數)’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들’은 앞말에 붙여 쓴다. ‘여럿 가운데’의 뜻인 ‘중(中)’은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띄어 쓴다. ‘좀더’와 ‘큰것’은 하나의 단어는 아니지만,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때는 붙여 쓸 수 있다는 한글 맞춤법 제46항 규정에 따라 ‘좀더 큰것’으로 붙여 쓸 수 있다.

예) 좀√더√큰√것(원칙) / 좀더√큰것(허용)  
 [오답]  
 ① ‘이달의 바로 앞의 달’을 뜻하는 ‘지난달’은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붙여 쓴다.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행위를 아울러 함을 나타내는 말인 ‘겸(兼)’은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② ‘물샐틈없이’는 ‘조금도 빈틈이 없이’의 뜻인 단어이며 품사는 부사이다.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붙여 쓴다. 물을 부어도 샐 틈이 없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며, ‘물샐틈없다’도 하나의 단어이다.  
 ④ ‘느커녕’은 앞말을 지정하여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뜻을 강조하는 보조사이다. 앞말에 붙여 쓴다. ‘느커녕’은 보조사 ‘느’에 보조사 ‘커녕’이 결합한 말이다.

2. 다음 중 파생법으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닌 것은?
- ① 교육자답다
  - ② 살피보다
  - ③ 탐스럽다
  - ④ 순수하다

2. [정답] ② [난이도 中 이문법]  
 [풀이] ‘살피보다’는 각각 동사 ‘살피다’와 ‘보다’가 결합한 합성 용언이다. 두 개의 실질 형태소가 결합한 합성어이며 합성법으로 만들어진 단어이다.

[오답]  
 ① ‘-답다’는 ‘성질이 있음’ 또는 ‘특성이나 자격이 있음’의 뜻인 접미사이며, ‘교육자답다’는 파생법으로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③ ‘-스럽다’는 ‘그러한 성질이 있음’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탐(貪 탐할 탐)’은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의 뜻인 명사이며 어근이다.

④ 명사 ‘순수(純粹)’에 붙여 쓴 ‘-하다’는 동사나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순수하다’는 형용사이며 파생어이고, 여기서 ‘-하다’는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3. 다음 중 사자성어가 가장 적절하게 쓰이지 않은 것은?
- ① 건강부회(牽強附會) 하지 말고 타당한 논거로 반박을 하세요.
  - ② 그는 언제나 호시우보(虎視牛步) 하여 훌륭한 리더가 되었다.
  - ③ 함부로 도청도설(道聽塗說)에 현혹되어 주책없이 행동하지 마시오.
  - ④ 이번에 우리 팀이 크게 이긴 것을 전화위복(轉禍爲福)으로 여기자.

3. [정답] ④ [난이도 中 한자성어]  
 [풀이] ‘전화위복(轉禍爲福)’은 재앙과 근심, 걱정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을 뜻하는 사자성어이다. 우리 팀이 크게 이긴 상황을 복이 된 상황으로 볼 수는 있으나 근심이나 걱정이 복이 되도록 바뀐 상황으로 볼 수 없으므로 ④ 문장에 ‘전화위복’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① 건강부회(牽強附會):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  
 ② 호시우보(虎視牛步): 명사 범처럼 노려보고 소처럼 걷는다는 뜻으로, 예리한 통찰력으로 꿰뚫어 보며 성실하고 신중하게 행동함을 이르는 말.  
 ③ 도청도설(道聽塗說):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한다는 뜻으로, 길 거리에 퍼져 돌아다니는 뜬소문을 이르는 말.

4.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한자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 ① 오래된 나사여서 마모가 심해 빠기 어렵다.
  - ② 평소 절차탁만에 힘써야 대기만성에 이를 수 있다.
  - ③ 정신을 수양하고 심신을 연마하는 것이 진정한 배움이다.
  - ④ 너무 열중하여 힘을 주다 보니 근육이 마비되었다.

4. [정답] ④ [난이도 上 한자]  
 [풀이] ‘마비(痲痺/麻痺)’의 ‘마’는 ‘痲(저릴 마)’ 또는 ‘麻(삼 마)’를 쓴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磨(갈 마)’를 사용한다. 참고로 ‘마비’는 감각이 없어지고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는 의학 용어이며, 본래의 기능이 둔화되거나 정지되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

르는 말로도 쓴다. ‘마비’의 ‘비(癱)’는 ‘저릴 비’이다.

- ① 마모(磨 갈 마, 耗 빌 호): 마찰 부분이 닳아서 없어짐.
- ② 절차탁마(切 髒을 절, 磋 갈 차, 琢 쪼을 탁, 磨 갈 마): 옥이 나 돌 따위를 갈고 닦아서 빛을 낸다는 뜻으로, 부지런히 학문과 덕행을 닦음을 이르는 말.
- ③ 연마(研 갈 연, 磨 갈 마 / 練 익힐 연, 磨 갈 마 / 鍊 불릴 연, 磨 갈 마): 주로 돌이나 쇠붙이, 보석, 유리 따위의 고체를 갈고 닦아서 표면을 반질반질하게 함. 학문이나 기술 따위를 힘써 배우고 닦음.

5.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 ① 한번 실패했다라도 다시 도전하면 된다.
- ② 한번은 네거리에서 큰 사고를 낼 뻔했다.
- ③ 고 녀석, 울음소리 한번 크구나.
- ④ 심심한데 노래나 한번 불러 볼까?

5. [정답] ① [난이도 中 띄어쓰기]

[풀이] ‘한’과 ‘번’은 문맥에 따라 띄어쓰기도 하며 하나의 단어가 기 때문에 붙여 쓰기도 한다. ‘번’이 차례나 일의 횟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과 같이 띄어 쓴다. 보통 ‘한 번’을 ‘두 번’, ‘세 번’으로 바꿔 쓸 수 있다면 1회의 뜻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띄어 쓴다. 그러나 ‘한 번, 두 번’으로 바꿔 쓸 때 뜻이 통하지 않으면, ‘한번’으로 붙여 쓴다. ①은 “한 번 실패하더라도 두 번, 세 번 다시 도전하자”는 ‘두 번’으로 바꾸어도 뜻이 통하기 때문에 ‘한 번’으로 띄어 쓴다.

[오답]

- ② ‘지난 어느 때나 기회’의 뜻인 명사.
- ③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인 부사.
- ④ 어떤 일을 시험 삼아 시도함을 나타내는 말인 부사.

[6~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류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에 있으며, 인류의 지적 같은 진화는 유대, 기독교, 이슬람이 전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초월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됐거나 힌두, 불교가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자연의 우연한 산물이다. 우주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류의 가치는 동물의 가치와 근원적으로 차별되지 않으며, 그의 존엄성은 다른 동물의 존엄성과 근본적으로 차등지을 수 없다. 자연은 한없이 아름답고 자비롭다. 미국 원주민이 대지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자연은 모든 생물의 원천이자 젖줄이다. 그것은 대자연 즉 산천초목이 보면 볼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선하고 풍요하기 때문이다. 자연은 무한히 조용하면서도 생기에 넘치고, 무한히 소박하면서도 환상적으로 아름답고 장엄하고 거룩한 모든 것들의 모체이자 그것들 자체이다. 자연은 영혼을 가진 인류를 비롯한 유인원, 그 밖의 수많은 종류의 식물과 동물들 및 신비롭고 거룩한 모든 생명체의 고향이자 거처이며, 일터이자 휴식처이고, 행복의 등지이며, 영혼을 가진 인간이 태어났던 땅이기 때문이다. 자연은 모든 존재의 터전인 동시에 그 원리이며 그러한 것들의 궁극적 의미이기도 하다. 자연은 생명 그 자체의 활기,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의 표상이다. 또한 그것은 인간이 배워야 할 진리이며 모든 행동의 도덕적 및 실용적 규범이며 지침이며 길이다. 자연은 정복과 활용이 아니라 감사와 보존의 대상이다.

6. 다음 중 위 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글쓴이의 성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낭만주의자(浪漫主義者)
- ② 자연주의자(自然主義者)
- ③ 신비주의자(神秘主義者)
- ④ 실용주의자(實用主義者)

6. [정답] ② [난이도 下 비문학]

[풀이] 글쓴이는 우주적인 관점에서 인류의 가치가 동물의 가치와 차별되지 않다고 보았다. 자연을 모든 생물의 원천으로 보고, 자연이 모든 존재의 터전이며 원리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에서 인간은 진리를 배워야 하며, 자연은 감사와 보존의 대상이라고 말한다. 글쓴이의 성격과 가장 어울리는 것은 ‘자연주의자(自然主義者)’이다.

[오답]

- ① 낭만주의(浪漫主義): 꿈이나 공상의 세계를 동경하고 감상적인 정서를 중시하는 창작 태도.
- ③ 신비주의(神秘主義): 우주를 움직이는 신비스러운 힘의 감지자인 신이나 존재의 궁극 원인과의 합일은 합리적 추론이나 정하여진 교리 및 의식의 실천을 통하여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초이성적 명상이나 비의(秘儀)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고 보는 종교나 사상.
- ④ 실용주의(實用主義): 실제 결과가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철학 사상. 행동을 중시하며, 사고나 관념의 진리성은 실험적인 검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

7. 위 글의 구성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두괄식
- ② 양괄식
- ③ 미괄식

④ 중괄식

7. [정답] ③ [난이도 中 비문학]

[풀이] 이 글은 마지막 부분에서 주제를 찾을 수 있다. 자연은 모든 존재의 터전이며 궁극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내용을 글의 마지막에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에 감사하고, 이 자연을 보존하는 일을 강조하는 글의 마지막 내용이 주제이다.

- 미괄식(尾括式): 문단이나 글의 끝부분에 중심 내용이 오는 산문 구성 방식.

[오답]

- ① 두괄식(頭括式): 글의 첫머리에 중심 내용이 오는 산문 구성 방식.
- ② 양괄식(兩括式): 글의 중심 내용이 앞부분과 끝부분에 반복하여 나타나는 문장 구성 방식.
- ④ 중괄식(中括式): 글의 중간 부분에 중심 내용이 오는 산문 구성 방식.

8. 다음 중 아래의 글을 읽고 추론한 라캉의 생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라캉에 의하면, 사회화 과정에 들어서기 전의 거울 단계에서, 자기와 자기 영상, 혹은 자기와 어머니 같은 양자 관계에 새로운 타인, 다시 말해 아버지, 곧 법으로서의 큰 타자가 개입하는 삼자 관계, 즉 상징적 관계가 형성된다. 이 형성은 제3자가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비집고 들어섬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상징적 질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미 그 질서가 구조적으로 인간에게 기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후천적, 인위적으로 그 구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인간은 단지 구조되어 있는 그 질서에 참여할 뿐이다.

말하자면 구조란 의식되지 않는 가운데 인간 문화의 기저에서 인간의 행위를 규정함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라캉에게 있어서, 주체의 존재 양태는 무의식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가능하다. 주체 자체가 무의식적인 것으로서 형성된다. 그러므로 주체는 무의식적 주체이다.

라캉에게 나의 사유와 나의 존재는 사실상 분리되어 있다. 그는 나의 사유가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라캉의 경우, ‘나는 생각한다’라는 의식이 없는 곳에서 ‘나는 존재’하고, 또 ‘내가 존재하는 곳’에서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라캉은 무의식은 타자의 진술이라고 말한다. 바꾸어 말한다면 언어 활동에서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는 타자로부터 발원되어 우리에게 온 것이다. ‘무의식은 주체에 끼치는 기표의 영향’이라고 라캉은 말한다.

이런 연유에서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라는 논리가 라캉에게 성립된다. 의식의 차원에서 ‘내가 스스로 주체적’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허상이다. 실상은, 나의 진술은 타자의 진술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것이다. 나의 욕망도 타자의

욕망에 의해서 구성된다. 내가 스스로 원한 욕망이란 성립하지 않는다.

- ① 주체의 무의식은 구조화된 상징적 질서에 의해 형성된다.
- ② 주체의 의식적 사유와 행위에 의해 새로운 문화 질서가 창조된다.
- ③ 대중매체의 광고는 주체의 욕망이 형성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 ④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는 옳지 않다.

8. [정답] ② [난이도 上 비문학]

[풀이] 글의 첫째 문단에서, 인간은 후천적, 인위적으로 구조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은 단지 구조되어 있는 질서에 참여할 뿐이다. 인간 문화의 기저에서 인간의 행위를 규정하는 것이 구조이고, 인간은 여기에서 무의식적 주체라는 것이 라캉의 생각이다. 인간이 주체의 의식적 사유와 행위로 새로운 문화 질서를 창조한다는 ②는 라캉의 생각과 거리가 멀다.

[오답]

- ① 둘째 문단 ‘구조란 의식되지 않는 가운데 인간 문화의 기저에서 인간의 행위를 규정함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라캉에게 있어서, 주체의 존재 양태는 무의식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가능하다.’에서 알 수 있다.
- ③ 대중매체의 광고를 ‘타자의 욕망’으로 본다면, 넷째 문단 ‘나의 욕망도 타자의 욕망에 의해서 구성된다.’에서 알 수 있다.
- ④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주체의 사유가 존재의 근본 이유이자 존재이다. 그러나 셋째 문단에서 라캉은 ‘나의 사유와 존재를 분리하고 있다는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라캉은, ‘나는 생각한다’라는 의식이 없는 곳에서 ‘나는 존재’하고, 또 ‘내가 존재하는 곳’에서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사유가 존재 자체가 되는 데카르트의 명제는 라캉에게 옳지 않다.

9. 다음 중 아래 시의 주제로 가장 옳은 것은?

바람결보다 더 부드러운 은빛 날리는  
가을 하늘 현란한 광채가 흘러  
양양한 대기에 바다의 무늬가 인다.

한 마음에 담을 수 없는 천지의 감동 속에  
찬연히 피어난 백일(白日)의 환상을 따라  
달음치는 하루의 분방한 정념에 현신된 모습

생의 근원을 향한 아폴로의 호탕한 눈동자같이  
황색 꽃잎 금빛 가루로 겹겹이 단장한  
아! 의욕의 씨 원광(圓光)에 묻힌 듯 향기에 익어 가니

한줄기로 지향한 높다란 꼭대기의 환희에서  
순간마다 이룩하는 태양의 축복을 받는 자  
느림한 잎사귀들 경이(驚異)를 담아 들고 찬양한다.  
-김광섭, <해바라기>

- ① 자연과 인간의 교감
- ② 가을의 정경과 정취
- ③ 생명에 대한 강렬한 의욕
- ④ 환희가 넘치는 삶

9. [정답] ③ [난이도 中 현대문학]

[풀이] 이 시는 해바라기의 외적 인상에서 강렬한 생명의 의욕(意欲)을 노래하고 있다. 첫째 연에서는 해바라기가 피어 있는 가을 하늘을 그렸고, 찬란히 피어난 해바라기를 ‘백일의 환상’으로 그리고 있다. 셋째 연에서, 해바라기의 씨가 박힌 중심 부분을 ‘아폴로의 호탕한 눈동자’로 비유하며 ‘의욕의 씨’로 표현했다. 마지막 연에서는, 이러한 해바라기가 낮은 곳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축복을 받는 꼭대기에서 경이를 담아 찬양하며 피어오른다고 노래한다. ③이 주제이다.

[오답]

- ① 자연과 인간의 교감과 관련이 없다.
- ② 가을의 정경을 그리고는 있으나 가을의 정취를 주제가 될 수는 없다.
- ④ 해바라기를 통해 생명의 의욕을 노래한 시이다. 환희가 넘치는 삶과는 관련이 없다.

[참고] 김광섭, <해바라기>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표현: 감각적, 묘사적
- 주제: 생명에 대한 강렬한 의욕(意欲)과 경이로움
- 해설: 이 작품은 ‘해바라기’에서 시적 화자가 생명에 대한 강렬한 의욕과 경이를 느끼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가을날에 화사하게 핀 해바라기의 외적 모습에서 강렬한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

10. 다음 중 아래 글의 제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방정식이라는 단어는 ‘정치권의 통합 방정식’, ‘경영에서의 성공 방정식’, ‘영화의 흥행 방정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애용된다. 수학의 방정식은 문자를 포함하는 등식에서 문자의 값에 따라 등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경우를 말한다. 통합 방정식의 경우, 통합을 하는 데 여러 변수가 있고 변수에 따라 통합이 성공하거나 실패할 수 있으므로 방정식이라는 표현은 대체로 적절하다.

그런데 방정식은 ‘변수가 많은 고차 방정식’, ‘국내·국제·남북 관계의 3차 방정식’이란 표현에서 보듯이 차수와 함께 거론되기

도 한다. 엄밀하게 따지면 변수의 개수와 방정식의 차수는 무관하다. 변수가 1개라도 고차 방정식이 될 수 있고 변수가 많아도 1차 방정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개수에 따라 m원 방정식으로, 상황의 복잡도에 따라 n차 방정식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 4차 방정식까지는 근의 공식, 즉 일반해가 존재하므로 해를 구할 수 없을 정도의 난맥상이라면 5차 방정식 이상이라는 표현이 안전하다.

- ① 수학 용어의 올바른 활용
- ② 실생활에서의 수학 공식의 적용
- ③ 방정식의 정의와 구성 요소
- ④ 수학 용어의 추상성과 엄밀성

10. [정답] ① [난이도 下 비문학]

[풀이] ‘방정식’이라는 용어가 수학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애용되고 있으며 이를 적절한 사용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문단에서는 ‘방정식’이라는 용어가 1차 이상 n차 방정식으로 사용될 경우 각각의 상황에서 어떠한 표현이 적절한지를 설명했다. 수학 용어인 ‘방정식’의 올바른 활용을 설명한 글이다.

[오답]

- ② 수학 공식을 적용하는 글로 볼 수 없다.
- ③ 방정식을 정의하는 글이 아니다.
- ④ 수학 용어의 추상성과 엄밀성과 관련이 없다.

11. 다음 중 ㉠~㉣에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먼 곳의 물체를 볼 때 물체에서 반사되어 나온 빛이 눈 속으로 들어가면서 각막과 수정체에 의해 굴절되어 망막의 앞쪽에 초점을 맺게 되면 망막에는 초점이 맞지 않는 상이 맺힘으로써 먼 곳의 물체가 흐리게 보인다. 이것을 근시라고 한다.

근시인 눈에서 보고자 하는 물체가 눈에 가까워지면 망막의 ( ㉠ )에 맺혔던 초점이 ( ㉡ )으로 이동하여 망막에 초점이 맺혀 흐리게 보이던 물체가 선명하게 보인다. 그리고 이 지점보다 더 가까운 곳의 물체는 조절 능력에 의하여 계속 잘 보인다.

이와 같이 근시는 먼 곳의 물체는 잘 안 보이고 가까운 곳의 물체는 잘 보이는 것을 말한다. 근시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눈 속에 맺히는 초점이 망막으로부터 ( ㉢ )으로 멀어져 가까운 곳의 잘 보이는 거리가 짧아지고 근시의 정도가 약하면 꽤 먼 곳까지 잘 볼 수 있다.

- ㉠ ㉡ ㉢
- ① 앞쪽 - 뒤쪽 - 앞쪽
- ② 뒤쪽 - 앞쪽 - 앞쪽
- ③ 앞쪽 - 뒤쪽 - 뒤쪽
- ④ 뒤쪽 - 앞쪽 - 뒤쪽

11. [정답] ① [난이도 中 비문학]

[풀이] 인간이 먼 곳의 물체를 볼 때 물체에서 반사되어 나온 빛이 눈 속으로 들어가면서 각막과 수정체에 의해 굴절되어 망막의 앞쪽㉠에 초점을 맺게 된다. 그런데 근시는 망막의 앞쪽에 맺혔던 초점이 뒤쪽㉡으로 이동하여 망막에 초점이 맺혀 흐리게 보이던 물체가 선명하게 보인다. 이처럼 먼 곳의 물체가 흐리게 보이는 것을 근시라고 한다. 근시가 심하면 눈 속에 맺히는 초점이 망막보다 더 앞쪽㉡으로 멀어져 가까운 곳의 잘 보이는 거리가 짧아진다.

12. 다음 중 ㉠을 가리키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허, 참, 세상 일두…….”  
 마을 갔던 아버지가 언제 돌아왔는지,  
 “윤초시댁두 말이 아니어. ㉠그 많은 전답을 다 팔아 버리구, 대대루 살아오든 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드니, 또 악상까지 당하는 걸 보면…….”  
 남폿볼 밑에서 바느질감을 안고 있던 어머니가,  
 “증손이라곤 기집애 그 애 하나뿐이었지요?”  
 “그렇지. 사내애 둘 있든 건 어려서 잃구…….”  
 “어찌든 그렇게 자식복이 없을까.”  
 - 황순원, <소나기> 중에서

- ① 雪上加霜
- ② 前虎後狼
- ③ 禍不單行
- ④ 孤掌難鳴

12. [정답] ④ [난이도 中 한자성어]

[풀이] 윤초시댁은 많은 전답을 다 팔아 버리고 살던 집마저 남에게 넘겼다. 또한 악상까지 당하는 상황이다. 나쁜 일이 반복하여 일어나는 상황이다. ④의 ‘고장난명(孤掌難鳴)’과는 관련이 없다.

- 고장난명(孤掌難鳴): 외손뼉만으로는 소리가 울리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혼자 힘만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오답]

- ① 설상가상(雪上加霜):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
- ② 전호후랑(前虎後狼): 앞문에서 호랑이를 막고 있으려니까 뒷문으로 이리가 들어온다는 뜻으로, 재앙이 끊일 사이 없이 닥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③ 복불단행(福不單行): 복은 홀로 오지 않는다. 복은 화를 동반하여 온다는 뜻으로 나쁜 일이 함께 일어남을 이르는 말.

13. 밑줄 친 말이 한자어와 고유어의 결합이 아닌 것은?

- ① 이번 달은 예상외로 가윗돈이 많이 나갔다.
- ② 앞뒤 사정도 모르고 고자질을 하면 안 된다.
- ③ 불이 나자 순식간에 장내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 ④ 두통이 심할 때 관자놀이를 문지르면 도움이 된다.

13. [정답] ③ [난이도 中 한자어]

[풀이] ‘아수라장(阿修羅場)’은 한자어로만 이루어진 말이다. 나머지는 각각 ‘돈’, ‘질’, ‘놀이’가 고유어이다.

- 아수라장(阿 언덕 아, 修 닳을 수, 羅 그물 라, 場 마당 장): 싸움이나 그 밖의 다른 일로 큰 혼란에 빠진 곳.은 한자어끼리 결합한 단어이다.

[오답]

- ① 가윗돈: 정해진 기준이나 정도를 넘어서는 돈. ‘가외(加 더할 가, 外 바깥 외)’
- ② 고자질: 남의 잘못이나 비밀을 알려바치는 짓. ‘고자(告 아뢰고, 者 농 자)’
- ④ 관자놀이: 귀와 눈 사이의 맥박이 뛰는 곳. ‘관자(貫 꿰 관, 子 아들 자) / ‘관자노리’(X)

14. 다음 중 아래의 작품과 내용 및 주제가 가장 비슷한 것은?

동풍(凍風)이 건듯 부러 적설(積雪)을 헤터 내니,  
 창 밧기 심근 매화 두세 가지 피어세라.  
 굵득 냉담(冷淡)헌디 암향(暗香)은 므스 일고.  
 향훈의 들이 조차 벼마티 빗최니,  
 늦기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더 梅(梅花)화 꽃거 내여 님 겨신 디 보내오져.  
 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꽃 디고 새 님 나니 녹음이 실렸는디,  
 나워(羅幃) 적막하고 수막(繡幕)이 뷔여 있다.  
 부용(芙蓉)을 거더 노코 공작(孔雀)을 둘러 두니,  
 굵득 시름 한디 날은 엇디 기뻐던고.  
 (鴛鴦) 버혀 노코 오식선 플터 내여,  
 금자히 견화이셔 님의 옷 지어 내니,  
 수품(手品)은 ㄱ니와 제도도 ㄱ줄시고.  
 산호슈 지게 우히 빅옥함의 다마 두고,  
 님의게 보내오려 님 겨신 디 ㅂ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머호도 머힐시고.  
 천리 만리 길히 뉘라셔 촌자 같고.

니거든 여러 두고 날인가 반기실가.

- 정철, <사미인곡> 중에서

- ①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뵈  
고인을 못 뵈도 녀던 길 알피잇니  
녀던 길 알피잇거든 아니 녀고 엇덜고
- ② 삼동에 베투 입고 암혈(巖穴)에 눈비 맞아  
구름 낀 별뉘도 췌 적이 없건만는  
서산에 해 지다 하니 눈물 겨워 하노라
- ③ 뭇버들 갈히것거 보내노라 님의  
손디자시논창 빛기 심거두고 보쇼서  
밤비에 새 님 곳 니거든 날인가도 너기쇼서
- ④ 반중(盤中) 조홍(早紅) 감이 고아도 보이느다  
유자 안이라도 품엄죽도 허다마논  
품어 가 반기 리 업슬새 글노 설워허느이다

14. [정답] ③ [난이도 상 고전문학]

[풀이] 입을 사모하고 입을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③과 주제가 같다. <사미인곡>은 '임'이 곧 임금이고 '연군지정(戀君之情)'이 주제이다. 반면에 ②은 홍량의 시조이며 임금과는 관련이 없다. 그러나 모두 입에 대한 그리움을 주제로 삼았다는 면에서는 같다.

[참고] 홍량의 시조

산에 있는 버들가지 중 아름다운 것을 골라 꺾어 임에게 보내 오니 / 주무시는 방의 창문가에 심어 두고 살피 주십시오. / 행여 밤비에 새 잎이라도 나면 마치 나를 본 것처럼 여겨 주십시오.

[오답]

- ① 퇴계 이황의 연시조 <도산십이곡> 중에서 아홉 번째 수에 해당한다. 옛 성현의 도리를 본받아 학문에 정진하겠다는 다짐이 드러내고 있다.
- ② 조식의 시조이다. 청빈한 생활을 하면서 듣게 된 임금(중종)의 승하 소식에 슬픈 심정을 읊은 노래이다.
- ④ 박인로의 시조이다. 한음 이덕형이 보낸 홍시를 보고, 효심이 깊은 인물인 화자가 육적의 회굴 고사를 연상한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지은 노래이다.

15.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 ① 발가숭이
- ② 깡충깡충
- ③ 뺨정다리
- ④ 오뚝이

15. [정답] ② [난이도 하 표준어 규정]

[풀이] 표준어 규정 제8항에 따라 '깡충깡충'(O)으로 표준어로 삼고 '깡충깡충'(X)을 버린다. 나머지는 모두 표준어이다.

16. 다음 중 아래 글의 내용을 포괄하여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주체 경어법은 용언에 선어말 어미 '-시-'를 넣음으로써 이루어진다. 만약 여러 개의 용언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라면 일률적인 규칙을 세우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문장의 마지막 용언에 선어말 어미 '-시-'를 쓴다. 또한 여러 개의 용언 가운데 어휘적으로 높임의 용언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용언을 사용해야 한다.

- ① 할머니, 어디가 어떻게 편찮으세요?
- ② 어머님께서 돌아보시고 주인에게 부탁하셨다.
- ③ 선생님께서 책을 펴며 웃으셨다.
- ④ 할아버지께서 주무시고 가셨다.

16. [정답] ④ [난이도 상 이론문법]

[풀이] 주체 높임 문장에서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는 대체로 문장의 마지막 용언에 쓴다. 그리고 어휘적으로 주체 높임을 표현하는 용언의 경우는 그 용언을 사용한다는 설명이다. ④는 '가셨다(가--시--었--다)'에서 문장의 마지막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썼다. 그리고 '주무시고'는 주체 높임의 용언 '주무시다'가 기본형이다.

[오답]

- ① 주체 높임의 용언인 '편찮다'가 사용되었고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도 사용되었다. '편찮으세요'는 '편찮다'의 어간 '편찮-'에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으)시-'를 넣은 표현이다. '여러 개의 용언이 함께 나타나는' 사례로 볼 수 없다.
- ② '돌아보시고, 부탁하셨다'에서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만 사용되었다.
- ③ '웃으셨다'에서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만 사용되었다.

17. 아래의 글에 나타나지 않는 설명 방식은?

텔레비전에서는 여러 종류의 자막이 쓰인다. 뉴스의 경우, 앵커가 기사를 소개할 때에는 앵커의 왼쪽 위에 기사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핵심을 추려 제목 자막을 쓴다. 보도 중간에는 화면의 하단에 기사의 제목이나 소재목을 자막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보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나 세부 자료도 자막으로 보여준다.

관객이나 시청자가 읽을 수 있도록 화면에 보여 주는 글자라는 점에서 영화에서 쓰이는 자막도 텔레비전 자막과 비슷하게 활용된다. 그런데 영화의 자막은 타이틀과 엔딩 크레딧 그리고 번역 대사가 전부이다. 이는 모두 영화 제작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는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된다. 번역 대사는 더빙하지 않은 외국영화의 대사를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텔레비전에서는 영화에서 쓰는 자막을 모두 사용할 뿐 아니라 각종 제목과 요약 내용을 나타내기도 하고 시청자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 말과 감탄사를 표현하기도 한다. 음성으로 전달할 수 없는 다양한 정보를 제작자의 의도에 맞게끔 자막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 ① 정의
- ② 유추
- ③ 예시
- ④ 대조

17. [정답] ② [난이도 中 비문학]

[풀이] 이 글에서 유추는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 ① ‘(자막은) 관객이나 시청자가 읽을 수 있도록 화면에 보여주는 글자’
- ③ 첫째 문단에서 텔레비전에 쓰는 자막을 ‘뉴스’를 예로 설명했다.
- ④ 둘째 문단에서 텔레비전과 다른 영화의 자막을 대조하여 설명했다.

18. 다음 중 (가)~(다)를 문맥에 맞는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최근 수십 년간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공격적인 환경보호 조치들을 취해왔다.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살충제와 독성 화학물질의 확산, 동식물의 멸종 위기 등을 우려한 각국의 정부들은 인간의 건강을 증진하고 인간 활동이 야생 및 원시 지역에서 만들어 낸 해로운 결과를 줄이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투자해왔다.

(가) 그러나 이러한 규제 노력 가운데는 막대한 비용을 헛되이 낭비한 것들도 상당수에 달하며, 그중 일부는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기도 했다.

(나) 이 중 많은 조치들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테면 대기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수십만 명의 조기 사망과 수백만 가지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었다.

(다) 예를 들어, 새로운 대기 오염원을 공격적으로 통제할 경우, 기존의 오래된 오염원의 수명이 길어져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대기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다.

- ① (나) → (가) → (다)
- ② (나) → (다) → (가)
- ③ (다) → (가) → (나)
- ④ (다) → (나) → (가)

18. [정답] ① [난이도 中 비문학]

[풀이] 세계 각국들이 환경 보호를 위해 많은 조치를 취해왔다는 내용으로 글을 시작했다. (나)는 이러한 조치들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는 내용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앞의 내용과 흐름이 자연스럽다. (가)는 (나)의 내용과 대조되는 내용이다. 환경보호 노력을 위한 조치가 실패한 경우를 설명했다. (다)는 (가)의 내용을 이어서, 환경보호 노력을 실패한 사례를 들고 있다.

19. 다음 중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수사법이 쓰인 것은?

흰 수건이 검은 머리를 두르고

흰 고무신이 거친 발에 걸리우다.

흰 저고리 치마가 슬픈 몸집을 가리고

흰 띠가 가는 허리를 질끈 동이다.

- 윤동주, <슬픈 족속>

- 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 ② 나의 마음은 고요한 물결
- ③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 ④ 의(義) 있는 사람은 옳은 일을 위하여는 칼날을 밟습니다

19. [정답] ④ [난이도 中 문학이론]

[풀이] 밑줄 친 부분은 수사법 중에서 대유법이 사용된 표현이다. 대유법 중에서도 환유법이 사용되었다. 환유법은 사물의 속성이나 특징,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보조 관념으로 취하여 대상 자체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우리 민족’을 ‘백의(白衣)’를 입은 속성으로 비유한 표현이다. ④도 에서 ‘칼날’은 ‘고통, 아픔, 위험’이라는 속성을 지닌 환유법이다. 참고로 ④는 한용운의 시 <나의 길이다>의 일부이다.

[오답]

- ① 서정주, <국화 옆에서>. 직유법
- ② 김광섭, <마음>. 은유법
- ③ 나희덕, <땅끝>. 활유법
- ④ 대유법이 사용되었다.

20. 밑줄 친 말의 표기가 잘못된 것은?

- ① 배가 고파서 공기밥을 두 그릇이나 먹었다.
- ② 선출된 임원들이 차례로 인사말을 하였다.
- ③ 사고 뒤처리를 하느라 골머리를 앓았다.
- ④ 이메일보다는 손수 쓴 편지글이 더 낫다.

20. [정답] ① [난이도 中 맞춤법]

[풀이] 사잇소리와 사이시옷의 올바른 표기를 묻고 있다. ‘공기에 담은 밥’을 뜻하는 ‘공깃밥(空器밥)’은 ‘공기(公器)’가 한자어이지 만 ‘밥’이 우리말이다. 또한 [공기밥/공깃밥]으로 사잇소리가 있기 때문에 ‘공깃밥’으로 적어야 한다.

[오답]

- ② ‘인사말(人事말)’은 [인사말]로 사잇소리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뒤처리(뒤處理)’는 [뒤:처리]로 발음하며 사잇소리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ㅈ’과 같이 거센소리 앞에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 ④ ‘편지글(便紙글)’은 ‘인사말’과 같이 [편:지글]로 사잇소리가 나타나지 않는다.

21. 다음 중 아래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떤 사람은 이곳이 옛 전쟁터였기 때문에 물소리가 그렇다고 말하나 그래서가 아니라 물소리는 듣기 여하에 달린 것이다.

나의 집이 있는 산속 바로 문 앞에 큰 냇가 있다. 해마다 여름철 폭우가 한바탕 지나가고 나면 냇물이 갑자기 불어나 늘 수레와 말, 대포와 북의 소리를 듣게 되어 마침내 귀에 못이 박힐 정도가 되어 버렸다.

나는 문을 닫고 드러누워 그 냇물 소리를 구별해서 들어 본 적이 있었다. 깊숙한 숲속에서 울려 나오는 솔바람 같은 소리, 이 소리는 청아하게 들린다. 산이 찢어지고 언덕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 이 소리는 격분해 있는 것처럼 들린다. 못 개구리들이 다투어 우는 듯한 소리, 이 소리는 교만한 것처럼 들린다. 수많은 축(築)이 번갈아 울리는 듯한 소리, 이 소리는 노기에 차 있는 것처럼 들린다. 별안간 떨어지는 천둥 같은 소리, 이 소리는 놀란 듯이 들린다. 약하기도 세기도 한 불에 찻물이 끓는 듯한 소리, 이 소리는 분위기 있게 들린다. 거문고가 궁조(宮調)·우조(羽調)로 울려 나오는 듯한 소리, 이 소리는 슬픔에 젖어 있는 듯이 들린다. 종이 바른 창문에 바람이 우는 듯한 소리, 이 소리는 회의(懷疑)스러운 듯 들린다. 그러나 이 모두가 똑바로 듣지 못한 것이다. 단지 마음속에 품은 뜻이 귀로 소리를 받아들여 만들어 낸 것일 따름이다.

- 박지원, <일야구도하기> 중에서

- ① 직유와 은유를 활용하여 대상을 묘사하였다.
- ② 세심한 관찰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 ③ 일상에서의 경험을 자기 생각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 ④ 다른 이의 생각을 반박하기 위하여 서술하였다.

21. [정답] ② [난이도 상 고전문학]

[풀이] 글쓴이는 자신의 집에서 물소리를 듣고 소리가 만들어내는

뜻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 세상의 소리는 듣기 여하에 따라 달리 들린다. 각각의 소리를 청아하게 또는 교만하거나 놀란 듯이 듣는 것은 모두 마음속에 품은 뜻이 귀로 들렸기 때문이다. 결국 세상의 소리는 듣는 자가 자신의 마음에서 만들어 낸 소리이다. ‘세심한 관찰’이 드러난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글은 ‘세심한 관찰’로 ‘본질’을 이해하는 내용이 아니다. 물소리는 본래 존재하지만 사람들이 물소리를 두고 전쟁터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전쟁터와 같은 상황에 현혹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소리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리 들리는 것이니, 사물의 본질에 정확히 도달하기 위해서는 외물(外物)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말하는 글이다.

[오답]

- ① ‘솔바람 같은 소리, 개구리들이 다투어 우는 듯한 소리’에서 직유, ‘수레와 말, 대포와 북의 소리’에서 은유를 알 수 있다.
- ③ 글쓴이는 자신의 집 앞의 큰 냇에서 들리는 소리를 구별하여 생각의 근거로 삼았다.
- ④ 글쓴이는 물소리는 마음속에 품은 뜻이 귀로 소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견해는 결국 다른 사람들의 ‘전쟁터였기 때문에 물 소리가 그렇게 들린다’는 생각에 대한 반박이다. 모든 사람들이 물소리를 들으며 전쟁터와 같이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마음의 소리일 뿐이라고 말하며 사람들의 견해를 반박하고 있다.

[참고] 박지원, <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河記)>

- 갈래: 중수필, 기행문, 한문수필
- 성격: 비유적, 교훈적, 사색적, 분석적, 설득적
- 표현: 치밀한 관찰력으로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본 사색적이고 관조적인 글이다.
- 해설: 체험의 적절한 예시 및 반론으로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추상적, 개념적인 서술을 피하고, 구체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결론을 이끌어 낸, 설득력이 있는 글이다.
- 짜임: 기-물 소리와 듣는 이의 마음가짐 / 승-흥중의 뜻에 따라 달리 들리는 물 소리 / 전-강을 건너는 자세와 내가 깨달은 진리 / 결-인생의 태도와 세인들에 대한 경계
- 주제: 외물(外物)에 현혹되지 않는 삶의 자세, 이목(耳目)에 구애됨이 없는 초연한 마음.
- 출전: 『열하일기(熱河日記)』

22. 밑줄 친 ‘보다’의 활용형이 지닌 의미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 ① 어쩐지 그의 행동을 실수로 볼 수가 없었다.
- ② 손해를 보면서 물건을 팔 사람은 없다.
- ③ 그는 상대를 만만하게 보는 나쁜 버릇이 있다.
- ④ 날씨가 좋을 것으로 보고 우산을 놓고 나왔다.

22. [정답] ② [난이도 中 어휘 의미론]

[풀이] ②는 '어떤 일을 당하거나 겪어나 얻어 가지다.(보다 1-[1]-㉠-「16」)'이다. '손해를 보다', '이익을 보다'와 같이 쓴다. 나머지는 '대상을 평가하다(보다 1-[1]-㉢)'의 뜻이다.

23. 다음 중 '을'이 '동의를 격률'에 따라 대화를 한 것은?

- ① 갑: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을: 무슨 일이지요? 지금 급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 ② 갑: 글씨를 좀 크게 써 주세요.  
을: 귀가 어두워서 잘 들리지 않는데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 ③ 갑: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을: 저는 매우 부족한 사람이라서 제대로 도와 드릴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 ④ 갑: 여러 침대 중에 이것이 커서 좋는데 살까요?  
을: 그 침대가 크고 매우 우아해서 좋군요. 그런데 좀 커서 우리 방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23. [정답] ④ [난이도 中 화법(말하기)]

[풀이] 공손성의 원리는 자신의 말이 상대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서, 상대를 배려하며 예절을 갖추어 대화하는 방법이다. 공손성의 원리 중 하나인 '동의를 격률'은 상대방과 불일치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상대방과 일치하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말하기이다. ④에서 갑은 큰 침대를 사려고 한다. 을은 그 침대가 커서 좋라며 갑의 말에 동의했다. 그리고 우리 방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나머지는 모두 상대방의 말에 동의를 드러내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았다.

[오답]

- ① 상대방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를 물으며 상대의 도움을 거절하고 있다. 공손성의 원리와 관련이 없다.
- ②, ③ 을이 자신을 비방하며 말한 겸양의 격률에 따른 대화이다.

24. 아래의 글에서 밑줄 친 단어들 중 고유어에 해당하는 것은?

절간의 여름 수도(修道)인 하안거(夏安居)가 끝나면 스님들은 바랑을 메고 바리를 들고서 동냥 수도에 나선다. 이 동냥이 경제적인 구걸로 타락된 적도 없지 않지만 원래는 중생으로 하여금 자비를 베풀 기회를 줌으로써 업고(業苦)를 멸각시키려는 수도 행사였다.

- ① 동냥
- ② 구걸
- ③ 중생

④ 자비

24. [정답] ① [난이도 上 어휘(고유어)]

[풀이] '동냥'은 고유어이다.

- 동냥: 거지나 동냥아치가 돌아다니며 돈이나 물건 따위를 거저 달라고 비는 일. 또는 그렇게 얻은 돈이나 물건.

[오답]

- ② 구걸(求 구할 구,乞 빌 걸): 돈이나 곡식, 물건 따위를 거저 달라고 빌.
- ③ 중생(中 가운데 중, 생 날 생):「명사」『불교』극락왕생의 구품(九品) 가운데 상품, 중품, 하품의 각 중간 자리. 상품 중생, 중품 중생, 하품 중생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 ④ 자비(慈 사랑할 자, 悲 슬플 비):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불교』중생에게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을 없게 함.

25. 다음 중 밑줄 친 단어를 <로마자 표기법>에 맞게 표기한 것은?

내 이름은 복연필이다.  
어제 우리는 청와대를 다녀왔다.  
작년에 나는 한라산을 등산하였다.  
다음 주에 나는 북한산을 등산하려고 한다.

- ① 복연필 - Bok Nyeonphil
- ② 청와대 - Chungwadae
- ③ 한라산 - Hanrasan
- ④ 북한산 - Bukhansan

25. [정답] ④ [난이도 中 로마자 표기법]

[풀이]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로마자 표기법 제1항-4) 예) 목호 Mukho, 집현전 Jiphyeonjeon

[오답]

- ① 사람의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ㄴ'을 첨가하여 표기한 'Nyeonphil'(X)은 잘못된 표기이다. 또한 '표'는 'p'로 적는다. 'Bok Yeonpil'(O), 'Bok Yeon-pil'(O)
- ② '기'는 'eo'로 적는다.. 'Cheongwadae'(O)
- ③ 한라산은 [할라산]으로 발음한다. 'Hallasan'(O)

<총평 및 분석>

2022년(7월 16일) 일반군무원 9급 국어

	유형	2013	2014	2015	2016	2017
1	문학	1	1	9	5	3
2	문법	6	1	3		2
3	비문학	4	7	1	3	6
4	어문 규정	7	6	6	7	7
5	어휘	2	3	1	3	1
6	관용어, 속담		1	1	2	1
7	한자어, 한자	1	2	1	2	2
8	한자 성어	1	1		1	1
9	고전문법		1	1		
10	어법, 생활국어	3	2	2	2	2

유형	2018	2019	2020	2021	2022
문학	6	5	7	3	5
문법	2	4	4	4	1
비문학	5	2	2	4	5
어문 규정	5	10	9	4	6
어휘	1		2	1	3
관용어, 속담	(1)			1	
한자어, 한자	1		1	2	2
한자 성어	1	1		1	1
고전문법	2	2		1	
어법, 생활국어	2	1		5	1

문제는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그리고 과거의 문제들을 변형하여 다시 출제한 문제들이 많다. 군무원 시험 문제를 공개한 것이 3년째이고, 공개되기 이전의 문제들도 상당히 많아서 이제 군무원 국어 시험도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이 있게 출제되는 경향이다.

여기서 평이하다는 것은 지금까지 군무원 9급 국어 문제와 비교했을 때 평이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번 시험도 어려운 문항들이 몇 문제 있었고, 이 문제들 때문에 당황한 수험생은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본다. 한자를 공부하지 않았던 수험생들은 4번, 13번, 24번의 한자어 문제가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기본적인 한자 공부 수준이 된다면 개별 한자의 정확한 표기와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정답을 찾을 수 있었다. 한자성어 두 문제 중에서 하나는 한자의 음을 붙이지 않았다. 군무원 국어 시험을 준비하면서 한자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다시 강조한다.

또한 8번 비문학 추론 문제, 14번 <사미인곡> 주제와 관련된 시조 찾기 문제, 16번 높임법 문제, 21번 <일야구도하기> 고전문학 문제 등도 쉽게 답을 찾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문제를 세밀히 읽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풀 수 있었다. 물론 침착한 마음으

로 문제를 하나씩 풀어 갔다면 일부 어려운 문제를 제외하고는 정답을 찾아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시험 후 만난 수험생들의 입장은 이와 달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 총평을 보고 2023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기출을 확인하고 하나씩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2022년은 비문학과 한자가 많이 출제되었다. 나머지 영역은 특정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출제하고 있다. 과거에는 문법과 어문규정을 집중적으로 출제했는데 이번 시험은 어문규정을 줄이고 비문학, 어휘, 한자어 등을 출제했다. 최근 공무원 시험에서 비문학이 많이 출제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이에 대한 접근도 되어있어야 했다. 상대적으로 문법 문제 비율이 줄었지만, 문법 공부를 바탕으로 어문규정 공부하기 때문에 여전히 군무원 국어 시험에서 문법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문학에서는 지식형 문제보다는 작품을 스스로 감상하고 이해하는 문제를 주로 출제했다. 이러한 경향은 군무원 국어 7급도 마찬가지이며 군무원 국어 시험의 특징이기도 하다. 지문이 포함된 문제는 끝까지 긴장을 풀지 말고 정답을 찾아야 한다. 공개된 정답으로 가채점을 한 수험생들은 자신의 가채점이 정확하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문규정은 어렵지 않았지만 이론문법의 높임법 문제는 어렵게 출제되었다. ‘이론문법, 어문규정, 고전문법, 어법’이 모두 문법으로 통합되는 공부라는 면에서 여전히 군무원 국어 시험은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초부터 심화까지 문법 공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군무원 국어 시험은 과거와 달리 문제를 골고루 출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공부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주었다. 군무원 국어 시험에 어문규정이 많이 출제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많이 당부했다. 2020년부터 ‘필기 50% + 면접 50%’가 최종합격이 되었으므로 필기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거듭 말하지만 이제 군무원 국어 시험은 혼자서 공부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었다. <하이클래스군무원학원>을 믿고 시험을 준비한다면 합격을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